

나인호 교수의 저서를 읽고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역사비평사, 2011)—

김학이 | 동아대학교 사학과 교수

개념사는 이미 우리들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덕분에 개념사 정기 학술지가 간행되고 있고, 단행본도 매년 몇 권씩 출간되고 있다. 단행본의 제목 몇 개만 보더라도 『민족·민족주의』, 『국민·인민·시민』, 『국가·주권』, 『만국공법』 등, 그 개념들을 떠나서는 근대 한국을 논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들이다. 이는 한국이 처음으로 우리의 근대를, 그리하여 우리 현재의 내면을 본격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그 연구서들은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해 왔고 또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기 때문이다. 평자 개인에게도 개념사는 한가운데 있다. 20세기 전반기의 독일사를 전공하는 나는 어떤 구체적인 주제를 연구하든, 과거의 언어에 지극히 예민하다. 연구 대상이 되는 인물의 표현과 개념을 한 줄로 세워 놓고 바라보기도 하고, 그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되는지 보기도 하며, 어떤 개념과 마주치면 거의 반자동으로 유사 개념과 반대 개념을 찾아보기도 한다.

넓게는 한국의 인문학이, 개인적으로는 내가 역사 속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예민해진 것은 한림대학교 인문학 교수들과 연구원들, 특히 사학과 박근

갑 교수 덕분일 것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라인하르트 코젤렉의 저서 『지나간 미래』를 번역한 독문학자 한철의 공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가장 큰 공로자를 꼽으라면 뭐니 뭐니 해도 나인호 교수다. 나인호 교수가 한국의 각종 학회에 나타나 개념에 대해 따지고, 개념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발표한 지는 15년이나 되었다. 평자 개인에게도 나인호 교수가 개념사에 대해 설명하고 개념사의 예를 든 지는, 유학 시절 독일 보쿰(Bocum)의 콘크리트 바닥에서 처음 만난 이후 20년이 넘었다. 나는 오로지 나인호 교수를 통하여 코젤렉과 루치안 훔스와 롤프 라이하르트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또한 그래서 나는 ‘나인호의 개념사에 대해 거의 다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근자에 출간된 그의 저서 『개념사란 무엇인가』를 읽고 깜짝 놀랐다. 그 책은 나인호 교수가 그동안 그 수많은 대화에서 말해 주었던 것을 훨씬 초과한다. 나는 그 책에서 다음 여덟 가지를 새로이 배웠다.

무엇보다도 나는 코젤렉의 “기본개념(Grundbegriff)”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기본개념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했었다. 코젤렉 스스로가 그의 저서 『역사적 기본개념』의 서문에 정의해 놓지 않았던가. 기본개념이란 “역사적 운동의 선도개념으로서, 그 이후의 시기에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며, 그 개념을 연구하면 그 시기의 “구조와 거대한 사건 연관이 해명될 수 있는” 개념이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뒤늦은 의구심이었지만, 도대체 “선도개념(Leitbegriff)”이란 무엇이며, 또한 역사가는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단 말인가? 이 막연한 대목에서 나인호는, 코젤렉이 무수히 강조했으나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것을 정확하게 적시해 주었다. 기본개념이란 ‘당대에 논란이 되었던 개념’이다! 당대에 치열하게 논의되거나(debated) 논란이 분분했던(disputed) 개념이라면, 그 개념에 당대인들의 경험 및 판단과 관심 및 기대가 투여될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당대를 “해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덤으로, 기본개념을 선택하는 데서 역사가의 현재적 관심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지만, 당대에 토론된 것이라는 조건은 역사가의 지나친 목적론적 관점을 제약해

주지 않겠는가.

당대에 ‘논의’되었던 개념이 기본개념이라는 저 단순한 규정을 통하여 나는 또한 개념사와 담론사의 차이점을 명료하게 알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담론사와 개념사의 ‘실행’에서 별다른 차이점을 보지 못했다. 담론 역시 개념을 중심으로 펼쳐지기에, 나는 담론을 재구성하는 작업이란 핵심어를 찾아내고 그것이 여타의 개념 및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내는 것으로 보았다. 양자의 차이점은 오히려 개념사가 개념의 전개를 ‘간간히’ 따지기에 좀 지겹다고, 특히 담론사는 일화와 인물과 사건을 함께 논하기에 훨씬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아니었다. 담론에는 당대에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개념 외에 다른 것들, 특히 당대의 논의가 이미 전제하고 있던 것이 담긴다. 이성과 광기에 대한 근대 초 서양의 논의에는 광기란 비이성이란 점이 이미 전제되고, 변태적인 성에 대한 19세기 말의 논의에서는 변태는 비정상이라는 판단이 전제되고, 그렇게 강요되었다. 그때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판단이 아니라 광기와 변태의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나는 또한, 나인호 교수가 왜 브라질의 개념사가 호아오 페레스(João Feres Júnior)에 극진한 흥미를 보이는지, 그리고 페레스의 연구가 어떤 잠재력을 지니는지 알게 되었다. 나인호 교수의 소개가 소략하기도 하고 페레스의 연구가 아직 두툼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페레스야말로 개념사와 담론사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담론사의 중핵을 이용하여 개념사를 확장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나인호 교수의 소개에 따르면 페레스는 “침묵의 언어”에 집중함으로써 “비(非)기본개념의 개념사”를 지향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인들은 “라틴 아메리카”란 개념에 대하여 결코 토론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 단어는 기본개념은 물론이고 ‘개념’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 단어는 라틴 아메리카로 표상되는 지역이 “권위적이고” “원시적이며 어린애 같은” 지역이라고 이미 전제하고, 그렇게 강요하며, 그렇게 그 지역과 국가와 인간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페레스의 개념사는 담론사가 되어 버린 개념사요, 담론사라는 정글에

뚫린 지름길로서의 개념사가 아니겠는가.

페레스에 대한 나인호 교수의 관심은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에 대한 연구와 짝한다. 우선 놀라운 점은 우리에게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개척자로 알려진 윌리엄스를 나인호 교수가 개념사가로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윌리엄스의 핵심어 연구가 개념사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 준다는 데 있다. 문화연구가 원래 대중문화에 대한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만큼, 윌리엄스의 핵심어 연구가 대중에 대한 연구일 수 있다는 점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어를 통해서 대중에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인가? 문제를 보다 일반화하자면, 언어를 통해서 대중, 혹은 민중에게 접근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평자는 현재 담론사와 개념사를 ‘실용적’으로 결합시킨 특정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나는 지식인이 고안한(coin) 특정한 개념이 학술 영역과 대중적인 문필 영역 및 국가 영역을 거쳐서 비로소 일상의 대중에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역사는 결국은 사상사요, 결국은 위로부터의 역사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다.

나인호 교수의 윌리엄스 연구는 나에게 한줄기 빛을 던져 주었다. 나는 언어를 통해 민중 및 대중에게 접근하되 그 연구가 위로부터의 역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층의 언어에서 독자성을 발견하는 길은, 대중이 엘리트의 언어를 어떻게 전유하는지 유의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러한 전유가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인호 교수가 보여 준 윌리엄스는 대중의 전유 양상이 특정한 지엽적인 문제를 공적 차원의 논의로 확대시킬 수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임금인상이라는 광부들의 협소한 이해관계의 문제가 “경영, 경제성, 법, 질서, 민주주의”라는 엘리트의 언어를 점유하고 그 의미를 확대하고 전복시키며, 그렇게 ‘개념정치’를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해주었다.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이제는 진부해진 슬로건이 개념사를 통하여 새로이 빛날 수 있는 것이다. 나인호 교수가 카를로 진즈부르크의 『치즈와 구

더기』를 개념사의 일환으로 새로이 읽은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메노키오는 치즈와 구더기라는 일상의 ‘은유’를 가지고 신과 창조와 유물론이라는 엘리트의 언어에 새로운 의미를 투여했다는 것이다.

나인호 교수의 독자적인 개념사 연구에서도 평자는 얻은 것이 많다. 나인호 교수는 “근대”, “문명과 문화”, “역사”, “여자”,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장(章)에서 개념사를 실행했다. 이 모든 연구에서 독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깨알 같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평자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정신”의 개념사에 주목했다. 나인호 교수는 그 논문에서 개념사를 통한 사상사를 수행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첨언하자면, 평자는 사상사는 옳지 않은 역사라는, 1980/90년대의 철없던 시절에 평자가 갖고 있던 신념을 버린 지 오래다. 역사에는 옳은 역사와 그릇된 역사란 없다. 있는 것은 좋은 역사 연구와 나쁜 역사 연구일 뿐이다. 나인호 교수의 “자본주의 정신” 연구는 좋은 역사 연구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나인호 교수는 막스 베버의 그 위대한 “자본주의” 연구(『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가 어떤 개인적·문화적·정치적 맥락에서 쓰인 것인지 명료히 했다. 막스 베버는 당대 학계에서 소외된 개인적인 처지에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현시하기 위하여, 19세기 말에는 이미 퇴락해 버린 아버지 세대 부르주아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기 위하여, 민족자유당(Nationalliberale)의 쇠락을 프리드리히 나우만의 민족사회주의 운동을 통하여 혁신하기 위하여 그 책을 썼다는 것이다. 베버의 연구가 마르크스 자본주의 연구의 안티테제라는 일반적인 평가는 이로써 허물어지고 만다.

나인호 교수는 베버 외에, 한때 호엔츨레른 황궁에서 궁정목사를 지냈던 아돌프 스티커(Adolf Stöcker)와 역사주의 경제학자 베르너 쾰바르트(Werner Sombart)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논했는지 보여 주었다. 평자가 나인호 교수의 연구를 읽으면서 불현듯 깨달은 것은—이는 나인호 교수가 적시하기도 한 것이지만—“자본주의”가 19세기 말 지식인들의 고안물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조차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마르크

스 역시 자신의 책 제목을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으로 정하지 않았던가. 이는 물론 어느덧 상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이다. 언뜻 떠오르는 개념만 하더라도, “군국주의”, “대중”, “제국주의”가 있는데, 각양각색의 “주의(~ism)”들이 우후죽순처럼 출현한 때도 19세기 말이다. 그리고 코젤렉이 “말안장 시대” 혹은 “문턱의 시대”라고 칭한 18/19세기에 출현했던 개념들이 정작 정치적 폭발력을 장전하게 된 때도 그때일 것이다. 추측건대 “프로레타리아트”가 그렇고, 심지어 “계급” 개념도 그럴 것이다.

게다가 나인호 교수의 “문명과 문화” 개념 연구와 “역사” 개념 연구는 그 시기에 그 개념들의 성충이 전복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역사”라는 개념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삶과 활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 시기는 18세기였다. 그리고 “역사” 개념의 그 기능이 붕괴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말이었다. 니체의 『반시대적 고찰』이 이를 잘 보여 주고, 당대에 벌어졌던 소위 “역사주의 논쟁”도 마찬가지다. 나인호 교수의 연구는 또한, “문명” 개념이 근대 비판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 시기도 바로 그때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대 문명을 결정지은 18, 19세기 “언어혁명”의 시간적 지평에서 19세기 말부터 1950년대까지의 하위시기를 독자적으로 구획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는 “세기말”이라는 진부한 시대적 구획의 변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문화적 비판주의를 개념사로 접근한다면, 특히 코젤렉의 “운동개념”을 이용하여 접근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대’를 낳기도 파괴하기도 다시 낳기도 했던 힘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길을 열 수도 있지 않을까?

흥미롭게도 나인호 교수의 연구는 라인하르트 코젤렉이 바로 그 시기, 즉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출현한 독일의 지식인들, 다시 말해서 막스 베버처럼 부르주아 사회를 버리지 못하되 그것을 넘어서려 했던 문명 비판자들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코젤렉은 하이데거, 뢰비트, 야스퍼스, 가다머, 카를 슈미트, 헬무트 플레스너의 영향 속에서, 혹은 그들 문제의식의

연속 속에서 자신의 지성과 학문을 쌓아 올린 인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개념사는 그 시기의 자기 성찰의 연속에 속하는 것으로 ‘사학사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첨언하자면, 평자는 독일에서 나치즘 및 패전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라는 규범이 절대화되고, 그렇게 세기말 우익 지식인들의 도발적인 문제제기가 망실된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지성의 몰락을 야기했다고 생각한다. 1945년 이후의 독일 역사학이 세계 역사학계에 수출한 유일한 특급 상품인 코젤렉의 개념사가 그 지성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은 평자의 판단이 옳았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다.

나인호 교수가 코젤렉의 개념사를 분석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한 문제들 중의 하나는 역사와 역사가의 관계다. 신문화사 및 포스트모던 역사학과 개념사가 어디에 접점이 있고 어디서 갈라서는지, 역사주의와 함께 근대 역사학이 대두하면서 나타난 난제, 즉 삶의 스승으로서의 역사가 끝장난 뒤에도 역사학이 가르침을 줘야 한다는 명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논한 대목이 그것이다. 평자는 그 문제를 따로 다루지 않으려 한다. 이 문제는 너무도 절실한 동시에 어느덧 진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나인호 교수의 답에 특정한 촌평을 기하는 것이 난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평자는 다만, 실재하는 과거를 ‘상정’해야만 역사가의 진술에 ‘의미’가 실린다고 코젤렉이 답했다는 것, 시간의 다층성을 구성해 내는 것이 현재와 과거의 차이를 드러내는 동시에 현재를 규명하는 길이라고 코젤렉이 강조했다라는 점만을 적시하고자 한다.

평자는 나인호 교수의 저서를 통하여 ‘나의 동료 나인호’의 학문적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개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의미론”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다. 후자는 특히 “철학적 의미론”과 대비되어 언급된다. 독일사를 전공하는 나의 머리에는 또한, 스스로를 “역사적 사회과학”으로 정립한 독일의 사회사가 떠오르기도 한다. 나인호는 스스로를 역사학자라기보다 인문학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닐까? 이는 무척 우려스럽다. 나는 한국에는 역사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역사성'의 부재가 한국의 인문학 담론을, 그리하여 사회과학 담론을, 그렇게 정치 담론을 싸구려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나인호처럼 뛰어난 학자가 인문학자라기보다 역사학자로 머물기를 바란다.